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고객 체험 공간 개관

생산기술 체험·기아 브랜드 스토리 직접 볼 수 있어 15~30인 단체 대상...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 가능

기아가 글로벌 베스트 셀링카부터 전 기차(EV)까지 다양한 차종을 생산하는 대표 생산 거점 '오토랜드 광주' 공장에 고객 체험형 브랜드관을 개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공간은 오토랜드 광명, 오토랜드 화성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고객 체험형 브랜드관으로 오토랜드 광주 본관동 1층에 마련됐다.

기아는 이번 광주 브랜드관 개소를 통

해 국내 전 생산거점에 고객 체험 공간을 구축하게 됐다.

오토랜드 광주에 선보인 고객 체험 공간은 차별화된 생산 기술 체험과 함께 고객이 새로워진 기아의 비전 및 브랜드 스토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먼저 브랜드관을 입장하면 광주의 빛을 모티브로 기아 브랜드의 진보 과정을 시간적으로 표현한 브랜드 필름 'The Light of Origins'를 감상할 수 있다.

또 뉴테크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운전 보조 시스템, AI 어시스턴트 등 기아의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EV 익스피리언스 존'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광주를 대표하는 KBO 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의 통산 열두 번의 우승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기아 타이거즈 존'도 마련해 지역성과 브랜드 스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해 함께 볼 수 있도록 연출했다.

또 브랜드관 투어 종료 후 셀토스, EV5 등 오토랜드 광주 대표 차종의 실제 생산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라인 투어도 마련해 자동차 생산의 주요 공정을 직접 살펴 보며 기아만의 차별화된 생산기술과 제조

역량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 공장장 문재웅 전무는 "오토랜드 광주 고객 체험 공간이 고객들이 방문하는 공간이자, 기아의 생산 기술과 비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최적화된 고객 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브랜드관 체험과 생산라인 투어로 구성된 오토랜드 광주 고객 체험 공간 투어는 평일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참여 신청은 기아 홈페이지 내 '오토랜드 투어' 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통해 가능하다. 대상은 만 10세 이상, 15~30인의 단체 관람객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 고객 체험 공간을 새롭게 마련해 개관한다. 사진은 오토랜드 광주 브랜드관에 마련된 'EV 익스피리언스 존'.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금호타이어 합평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현장에는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하춘 합평군수 권한대행, LH광주전남지역본부 이광로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장, 정영모 합평공장건설단장 등이 참석했다.

“합평공장,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것”

윤호중 장관, 금호타이어 빛그린산단 건설 현장 방문

금호타이어는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이 합평공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장에는 윤 장관을 비롯해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강하춘 합평군수 권한대행, LH광주전남지역본부 이광로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 금호타이어 정일택 대표이사, 황호길 안전생산혁신본부

장, 정영모 합평공장건설단장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광로 LH 건설사업처단지사업팀장의 빛그린산단 현황 브리핑에 이어 정영모 금호타이어 합평공장건설단장의 브리핑이 진행됐다.

윤 장관은 "전남광주통합에 앞서 상생 협력의 길을 먼저 모색해 온 빛그린산단

에 금호타이어까지 온다면 이 지역은 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합평공장이 전남 광주통합특별시와 함께 계속 성장해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일택 대표이사는 "바쁘신 일정 속에 금호타이어를 찾아주시는 윤호중 장관님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첨단 기술이 집약된 합평공장을 통해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 프리미엄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타이어 합평공장 건설은 총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는 연간 타이어 530만본 생산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련고무 700만본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형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스마트 제조설비 및 친환경 공정을 갖춘 공장으로 2028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한다.

생산 효율성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제조 역량 고도화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보해 금호타이어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안전공업 화재...엔진밸브 수급 '예의주시'

기아 광주공장, 재고 활용·대체 공급망 확보로 대응

자동차 부품 업체 안전공업 화재 여파로 국내 완성차 생산 차질이 확산되는 가운데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은 현재 정상 가동을 유지하며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엔진밸브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생산 차종 조정 등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업계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5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공장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공장은 정상적으로 양산을 진행하고 있으며 생산 중단 계획은 없는 상태다.

광주공장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현재 양산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생산 중단은 없다"며 "재고 물량을 활용하고 있고 대체 부품사 확보도 병행하고 있어 생산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엔진밸브는 공기와 연료가 엔진 실린더로 유입되고 배기가스가 배출되는 과정을 제어하는 부품이다. 내연차 엔진 생산에는 꼭 필요하다. 다만, 차종과 사양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 모든 차량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품은 아니라는 게 광주공장 측의 설명이다.

광주공장에서 생산되는 스포티지와 셀토스 일부 차종에는 해당 부품이 적용되지만 사양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는 만큼 전면적인 생산 차질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부품 수급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생산 일정 조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광주공장 측은 재고 활용과 대체 공급 확보를 병행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생산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다. 기아 오토랜드 화성 엔진공장은 엔진밸브 공급 중단 여파로 근무시간을 단축 운영 중이며 오는 27일 공장 가동을 중단할 예정이다.

화성공장에서 생산된 엔진은 광명 등 완성차 공장으로 공급되는 구조여서 엔진 생산 차질은 완성차 생산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현대차 울산공장 역시 현재까지는 정상 가동 중이지만, 해당 부품이 필요한 차종의 생산 순서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아 모닝·레이블 위탁생산하는 동희오토는 안전공업 화재에 따른 엔진밸브 공급 차질로 오는 27일부터 차량 생산을 부분 중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4월 1~11일 전면 중단도 검토 중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현대차·기아 안전공업을 비롯해 소수의 협력업체로부터 엔진밸브를 공급받아온 만큼 향후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삼성전자, 업계 최초 스마트 모니터 CC 인증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강화...최고 수준 보안 입증

삼성전자는 2026년형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보안 솔루션이 국제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CC 인증'은 정보보호가 필요한 제품의 보안성을 평가하는 국제 표준 인증으로 전 세계 36개국이 상호 인정하는 평가 인증이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스마트 TV에 자체 보안 솔루션 '삼성 Knox'를 적용해 올해로 12년간 CC 인증을 받았다.



보안 솔루션 '삼성 Knox'

또 올해 업계 최초로 스마트 모니터도 CC 인증을 획득하며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성능을 입증했다.

이번 인증은 삼성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에 적용된 삼성 Knox의 핵심 보안 역량에 대한 엄격한 검증에 의해 수여됐다.

검증 항목은 커널 영역의 무결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SIM', 웹 브라우저

사용 시 피싱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WBS', 실행 파일의 서명을 검증해 비인가 실행을 차단하는 'UEP'이다.

이외에도 삼성 Knox는 하드웨어 기반 독립 보안 구역인 '트러스트존', 민감 정보를 보안함에 별도로 보호하는 'Knox 볼트', 기기 간 보안 상태를 통합 관리하는 'Knox 매트릭스' 등 다중 보안 구조를 통해 강력한 보안 환경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 손태웅 부사장은 "이번 인증을 통해 삼성 Knox가 적용된 스마트 TV와 스마트 모니터가 최고 수준의 보안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기아-행정안전부, 지방소멸 위기 대응 맞손

소멸위기지역 고령층에 신선식품 무료 배송 서비스

기아가 행정안전부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기아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준영 대표이사,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인구 수 감소로 집중되는 지방소멸 현상으로 소멸위기지역의 고령층이 겪는 식품 사막과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모아 이뤄졌다. 협약에 따라 기아와 행정안전부는 소멸위기지역을 대상으로 PBV(목적기반모빌리티)를 활용한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를 런칭한다.

해당 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며, 전용 우선 콜센터를 통해 필요한 신선식품을 주문하면 경로당, 마을회관 등 주요 거점에서 PBV로 배송되는 식품을 수령 및 결제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운영을 위해 기아는 이동형 냉장고와 냉동고를 탑재한 PV5 카고 모델을 투입해 원활한 배송을 돕고, 지역 식료

품점과의 공급 계약을 통해 저렴한 가격에 신선식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서비스 지역 내 차량 기지, 충전소 등 신선식품 배송 기반을 조성하고 배송 사업을 실행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연대 경제 조직의 육성을 담당한다.

기아와 행정안전부는 배송 서비스와 연계해 건강 체조,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이벤트도 운영할 계획이다.

PBV를 활용한 소멸위기지역 신선식품 무료배송 서비스는 올해 2분기 중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되며, 연내 1개의 기초지자체를 추가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향후 수요와 지역 여건을 검토해 서비스 범위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령층의 경우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 기쁘다"며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다양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

기아 EV9 GT, 볼보 제쳤다...유럽서 경쟁력 입증

기아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 GT'가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볼보 전기 SUV EX90을 제치고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자동차의 본고장 독일에서 신뢰성 높은 자동차 매거진인 아우토빌트의 평가 결과는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소비자들 사이에서 구매할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아우토빌트 최근호에 게재된 이번 비교 평가는 기아 EV9 GT와 볼보 EX90 트윈 모터 사륜구동(AWD) 모델을 대상으로 주행성능 등 7가지 평가 항목에 걸쳐 진행됐다.

평가 결과 EV9 GT는 바디, 파워트레

인, 경제성 등 주요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며 총점 583점으로 EX90(565점)을 18점 차로 제쳤다. 이는 프리미엄 브랜드 인 볼보의 최상위 전기차 모델을 상대로 국산 고성능 전기차가 성능과 가치 면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기아는 지난해 5월 실시된 아우토빌트의 비교 평가에서도 'EV9 GT-line(AWD)'이 볼보 'EX90 트윈 모터 AWD'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바 있다.

고성능 모델의 핵심인 파워트레인 부문에서도 EV9 GT의 진가가 드러났다. EV9 GT는 최고출력 508마력을 발휘하는 강력한 모터 성능과 800V 고전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초고속 충전 기술로 97점을 받으며 EX90을 제쳤다.

장승기 기자



기아 플래그십 전동화 스포츠유틸리티차(SUV) 'EV9 GT'가 독일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 '아우토빌트'의 전기차 비교 평가에서 볼보 전기 SUV EX90을 제치고 우수한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